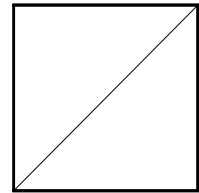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7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3. 16. (제 5 차)	

(주)셀트리온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3. 16.

1. 의결주문

(주)셀트리온의 제19기('09.1.1.~'09.12.31.)부터 제30기('20.1.1.~'20.12.31.)까지의 사업 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셀트리온의 제19기('09.1.1.~'09.12.31.)부터 제30기('20.1.1.~'20.12.31.)까지의 사업 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조치안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안
(주)셀트리온	정기보고서 등 기재 위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과징금 6,000백만원
OOO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과징금 207.5백만원
OOO (담당임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과징금 207.5백만원
OO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감사	과징금 495백만원

나. 위반내용

① (주)셀트리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

- 회사, 대표이사 000 및 담당임원 000은 제19기('09.1.1.~'09.12.31.)부터 제30기('20.1.1.~'20.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개발비 과대계상

(연결·별도 '17년 21,243백만원, '18년 36,639백만원, '19년 31,220백만원, '20년 25,800백만원)

- 회사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교환받은 장기 채고 중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채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연결·별도 '16년 113,379백만원, '17년 22,048백만원, '18년 24,328백만원)

- 회사는 개발과정에 사용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행한 특수관계자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채고 교환 거래를 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③ 종속기업의 채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연결 '16년 13,000백만원)

- 회사는 '16년말 종속기업(셀트리온제약)의 변경허가와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허쥬마 의약품 13,000백만원에 대해 채고 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④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과대계상

(‘09년 17,503백만원, ‘10년 39,002백만원, ‘11년 연결·별도 63,154백만원, ‘12년 연결·별도 66,368백만원, ‘13년 연결·별도 69,191백만원, ‘14년 별도 69,306백만원, 연결 90,295백만원, ‘15년 별도 67,861백만원, 연결 110,058백만원, ‘16년 별도 76,038백만원, 연결 128,960백만원, ‘17년 별도 95,703백만원, 연결 143,205백만원)

- 회사는 개발비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으로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OO회계법인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 >

- OO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회사의 제25기(‘15.1.1.~‘15.12.31.)부터 제30기(‘20.1.1.~‘20.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개발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17년 21,243백만원, ‘18년 36,639백만원, ‘19년 31,220백만원, ‘20년 25,80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을 개발비로 과대 계상 하였음에도,
- 개발비 인식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16년 113,379백만원, ‘17년 22,048백만원, ‘18년 24,328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재고교환거래를 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동 교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③ 종속기업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 '16년 13,00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판매가 불가능한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종속기업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④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5년 별도 67,861백만원, 연결 110,058백만원, '16년 별도 76,038백만원, 연결 128,960백만원, '17년 별도 95,703백만원, 연결 143,205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음에도,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2022년 임시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22.3.11.)

다. 2022년 임시 제5차 안전검토 소위원회 심의필(2022.3.14.)

라. 관계법규(불임)

(별지1)

(주)셀트리온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는 (주)셀트리온 및 (주)셀트리온의 임원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정기보고서 등에 사용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셀트리온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 000 00000 00

☐ 000[(주)셀트리온의 대표이사]

- 생년월일 : '00.00.00.
- 주소 : 000 000 0000 000000000 0-00

☐ 000[(주)셀트리온의 재무담당임원]

- 생년월일 : '00.0.0.
- 주소 : 00000 000 0000 000, 0000 0000(0000000000)

2.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의하여

- (주)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 6,000,000,000원을 부과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 (주)셀트리온 대표이사 000에 대해 과징금 207,500,000원을 부과한다.
- (주)셀트리온 담당임원 000에 대해 과징금 207,5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셀트리온(이하 '회사')는 제19기(2009.1.1.~2009.12.31.)부터 제30기(2020.1.1.~2020.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개발비 과대계상

(연결·별도 '17년 21,243백만원, '18년 36,639백만원, '19년 31,220백만원, '20년 25,800백만원)

- 회사는 (주)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교환받은 장기 채고 중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채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연결·별도 '16년 113,379백만원, '17년 22,048백만원, '18년 24,328백만원)

- 회사는 개발과정에 사용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행한 특수관계자(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채고 교환 거래를 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종속기업(셀트리온제약)의 채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연결 - '16년: 13,000백만원)

- 회사는 '16년말 종속기업(셀트리온제약)의 변경허가와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허쥬마 의약품 13,000백만원에 대해 채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과대계상

('09년 17,503백만원, '10년 39,002백만원, '11년 연결·별도 63,154백만원, '12년 연결·별도 66,368

백만원, '13년 연결·별도 69,191백만원, '14년 별도 69,306백만원, 연결 90,295백만원, '15년 별도 67,861백만원, 연결 110,058백만원, '16년 별도 76,038백만원, 연결 128,960백만원, '17년 별도 95,703백만원, 연결 143,205백만원)

- 회사는 개발비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제56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제25조의2, 별표 제2호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회사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음.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39조, 46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제39조, 별표 제1호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재무제표 감리 결과 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별표 8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름.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4조, 제426조, 제429조 및 제4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175조, 379조 및 제387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별표 제2호

-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21, 54, 57, 65

-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6, 9, 28, 30, 33

- 기업은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와 취득원가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6, 9, 18

-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 舊 「기업회계기준」 제3호(무형자산) 문단16, 41

-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별지2)

OO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는 (주)셀트리온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OO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 0000 00000 000 0000 00-00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에 과징금 495,0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 OO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주)셀트리온(이하 ‘회사’)의 제15기(2015.1.1.~2015.12.31.)~제30기(2020.1.1.~2020.12.31.)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함

○ **개발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17년 21,243백만원, '18년 36,639백만원, '19년 31,220백만원, '20년 25,80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을 개발비로 과대 계상 하였음에도
- 개발비 인식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16년 113,379백만원, '17년 22,048백만원, '18년 24,328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재고교환거래를 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동 교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종속기업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 - '16년: 13,00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판매가 불가능한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종속기업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5년 별도 67,861백만원, 연결 110,058백만원, '16년 별도 76,038백만원, 연결 128,960백만원, '17년 별도 95,703백만원, 연결 143,205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음에도,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하고, 경고나 주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이내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르되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회계감사기준」 200, 250, 500, 550, 700 등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오류의 발견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 감사절차가 부정의 발견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
- 후속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 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실증절차 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함
-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함
- 감사인은 재무제표 상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법규 조항의 준수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감사인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험 중 유의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시, 식별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감사인은 이를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해야 한다.

(붙임)

관계법규

舊 株式會社の 外部監査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1. ~ 2. <생략>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제외한다.
 4. ~ 9. <생략>
- ②~④ <생략>

제5조(회계감사기준)

-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 ①~② <생략>
-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⑥ <생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 ② 삭제
-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⑤~⑥ <생략>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 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조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2.~4. <생 략>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2. <생 략>
 -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 4.~5. <생 략>

제18조의2(자료제출의 협조 요청)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벌칙)

- ①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⑤ <생 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 ② <생 략>
-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⑦ <생 략>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3. <생 략>
 -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 5.~12. <생 략>
- ②~⑦ <생 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 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주권상장법인
 -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⑤~⑦ <생략>

제35조(과징금)

-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 ④~⑤ <생략>

제39조(벌칙)

-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생략>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 1.~6. <생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 8.~20. <생략>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 ③ <생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5. <생략>
- ③~⑧ <생략>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및 결합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생략>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 3.~4. <생략>
- ② <생략>
- ③ 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삭제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 5. 경고 또는 주의
 -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②~③ 삭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 가. 등록취소
 -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 5. 경고 또는 주의
 -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책임자에게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당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다음 각 호의 자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② <생략>

제56조(고발등)

- ① 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증선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정황으로 보아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7조(조치기준)

- ①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4. 삭제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 등)

-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삭제
-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⑤~⑥ 삭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② ~ ⑧ <생 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③ ~ ⑦ <생 략>

제31조(사전통지)

-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 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예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 ①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4. <생략>

부칙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임직원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3. 조치등의 가중·감경

가. 가중사유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에게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치등의 병과
- 1)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 ①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 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 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와 처리)

-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 ①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와 처리)

-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와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 ①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

-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1. 서면에 의한 방법
 -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⑦ <생략>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조사 및 조치)

-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①~② <생략>
-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 ④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5.28.>
-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4.12.30.>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④ <생략>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② 법 제1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6. <생 략>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①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79조 (과징금 부과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1의2~3. <생 략>

②~⑤ <생 략>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 2.~4. <생 략>

② <생 략>

제25조(과징금의 부과)

-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단서신설 2015.7.14.>
-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5.7.14.>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舊기업회계기준

제 3호(무형자산)

- 16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단5 (가)의 정의와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1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가)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나)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 (다)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라)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한다.
 - (마)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바)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제1002호(재고자산)

6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

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②~(3) <생략>

순실현가능가치 :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7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정상거래의 가격을 반영한다. 전자는 기업특유가치이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28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① <생략>

②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된 경우

③~④ <생략>

30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33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한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그 결과 새로운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판매가격의 하락 때문에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재고항목을 후속기간에 계속 보유하던 중 판매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6 특수관계는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배기업에 원가로 판매하는 재화를 다른 고객에게는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의 거래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자와의 거래의 거래 금액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 7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과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하 생략>
- 8 이러한 이유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잔액 및 특수관계에 대한 이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기업의 영업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 9 특수관계자 거래: 대가의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
- 18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중략)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① 거래 금액
 - ②~④ <생 략>

제1038호(무형자산)

-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4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 5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65 문단 24에 따라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문단 21, 22와 57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문단 71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66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 (2)~(4) <생략>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3 (감사범위) 이 기준에 준거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인은 이 기준, 관련 법규 및 감사계약조건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240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3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할 때 재무제표가 부정과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감사절차)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견과 부정위험의 고려)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왜곡표시가 부정과 관련된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부정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감사의 다른 측면, 특히 경영자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없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5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평가 및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이로 인하여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8 (부정과 오류의 통보 등) 부정이나 부정으로 의문시 되는 사항 또는 오류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왜곡표시 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정보를 경영자, 내부감시기구, 경우에 따라서 규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존재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8.2 (부정에 의한 왜곡표시) 부정을 파악하였거나 부정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증거를 입수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왜곡표시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이 문제를 적절한 직위의 경영자에게 적시에 통보한다.

500 감사증거

2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 2.1 감사인은 내부통제의 시사로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통제위험의 평가수준을 뒷받침 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 2.2 감사인은 입증절차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내부통제의 시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더불어 재무제표의 경영자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 2.3 감사인이 경영자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 한정 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 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 3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 감사인은 실물자산이나 문서의 검사, 관찰, 질문과 조회, 계산 및 분석적 절차 등 하나 이상의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는 시기는 수집하고자 하는 감사증거의 입수가능기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700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 (감사 의견)

- 2.1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표명의 근거로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한 결론을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 위험을 수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 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240 부정 위험

- 26 부정으로 인한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 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수익이나 수익 거래 또는 경영진 주장이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지 평가하여야 한다.
- 35 감사인은 왜곡 표시를 식별한 경우 그러한 왜곡 표시가 부정의 징후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으면 감사인은 특정의 부정 사례가 고립되어 발생한 사건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의 다른 측면, 특히 경영진 진술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해당 왜곡 표시가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36 감사인이 그 중요성과 관계없이 어떤 왜곡표시를 식별하였으며, 그 왜곡표시는 부정의 결과이거나 결과일 가능성이 있고, 경영진(특히 상위 경영진)이 연루되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면,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및 그러한 평가에 대응하였던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생략)

42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는 기타의 부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수익인식의 부정위험 (문단 26 참조)

A28 수익의 인식과 관련하여 부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는 종종 수익의 조기인식이나 가공수익의 계상 등에 의한 과대계상에 기인하며, 수익의 부적절한 이연인식 등 수익의 과소계상에 기인할 수도 있다.

부정에 관한 기타사항들 (문단 42 참조)

A64 기업의 지배기구와 논의할 부정에 관한 기타사항에는 예를 들어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기업의 성과와 수익성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이들을 기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을 조정하려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과 같이 부정한 재무보고의 징후일 수 있는 경영진의 행위들

25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6 이 감사기준서는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법규에 대한 준수와 관련하여 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하고 있다.

① 세금이나 연금 관련 법규와 같이 재무제표 상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법규 조항

② <생략>

7 문단 6의 (a)유형에 대하여는, 감사인은 그 법규 조항의 준수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책임이 있다.

12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에 따른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의 일부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 ㉠ 기업과 그 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산업 또는 부분에 적용되는 법규
- ㉡ 기업이 이러한 법규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 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는 법규 조항의 준수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5 감사인은 명백하게 사소한(clearly trivial)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를 집계하여야 한다.

6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 (a) 식별된 왜곡표시의 성격과 그 발생된 상황에 따르면 다른 왜곡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들과 합쳐졌을 때 중요할 수 있는 경우
- (b)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의 합계가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결정된 중요성에 근접하는 경우

왜곡표시의 커뮤니케이션과 수정

8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3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이러한 왜곡표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7-A9 참조)

문서화

15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5 (문단 A25 참조)

- (a) 일정 금액 미만의 왜곡표시로서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trivial)고 간주하게 되는 금액
- (b)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 및 그러한 왜곡표시가 수정되었는지 여부
- (c) <생략>

왜곡표시의 커뮤니케이션과 수정(문단8-9 참조)

A7 왜곡표시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경영진이 해당사항이 왜곡표시인지를 평가하게 하고, 경영진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에게 이것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므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이란 왜곡표시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500 감사증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550 특수관계자

2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는 그 성격상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거래보다 더 높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특수관계자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의 계약조건 하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거래가 대가의 교환 없이 수행될 경우

13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①~② <생략>

③ 기업이 해당 기간 중에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체결했는지 여부, 만약 그러하다면 그러한 거래의 형태와 목적

18 감사인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험 중 유의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시, 식별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감사인은 이를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해야 한다.

23 감사인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한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근거 계약이나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검사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i) 해당 거래의 사업상 이유(또는 그러한 근거의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행하거나 자신의 유용을 은폐하기 위해 체결되었을 것임을 나타내는 지 여부

(ii) <생략>

(iii) 해당 거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되고 공시되었는지 여부

⑥ <생 략>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 11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전문직 기준 및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그룹 감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수행하며 발행된 감사보고서가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부문감사인을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법규상 부문감사인의 언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부문감사인을 언급하더라도 그룹업무수행이사 또는 그룹업무수행이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그룹감사의견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지 아니함을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내야 한다.
- 44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연결절차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 및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통하여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 7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 적정의견 -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
- 10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감사의견>

- 35 감사인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때, 법규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감사의견에 다음의 문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문구는 서로 동등한 것으로 본다.
- (a) 재무제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b) 재무제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심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710